

대림 제4주일

기도서 P. 223 C해

- 제1독서(미 케) 5, 2-5)
- 제2독서(헤 브) 10, 5-10)
- 복 음(루 까) 1, 39-45)

숲 정 이

발행인 범 석 규
 인쇄인 김 봉 희
 주 간 조 성 호
 편 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560의 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②2935)

□ 강론



사랑을 낳는

크리스마스

김 봉 희 신부

설레며 기다리던 「크리스마스」-메세야 임금님의 성탄절이 바짝 다가왔습니다.

아직 하얀 눈은 내리지 않았지만, 그 소복한 눈송이 위에 더 고운, 빨간 사랑의 선물 안고 행복의 손 흔드이며 그님이, 우리님이 평화로이 오시옵니다.

이 땅의 고뇌와 서름을 씻어주시고 죄와 죽음의 십연에서 우릴 건져주시려 새롭게 이날에도 또 오시옵니다.

“하늘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사랑하는 이에 평화!”

해마다 맞는 성탄절입니다만 아마도 느끼는 감회는 매우 다름성 싶어 보입니다. 우리 대부분에겐 어쩔 단순한 축제의 기분속에 슬렁이던 밤이거나. 아니면 뭇지 몰래 몽글렸던 한달 흥겨운 추억이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어떤 분들에게 진정 포근하고 감미로운 사랑의 밤, 거룩하고 고요한 성야(聖夜)가 되기도 했을테지만...

그러나 어쨌든 성탄절은 우리에게 항상 거룩하고 경건한 날이 돼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도 고맙고 은혜로웠던 이 날을 온 누리가 즐겨 「크리스마스」라고 부른 예수 성탄의 그 깊은 뜻을 살펴 볼 때 더욱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란 어디까지나 신비 가득한 그리스도의 생애, 그분의 탄생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의 인류구원을 위한 형극의 삶과 죽음과 부활, 그 은총 넘치는 위대한 「마사키의 신비」를 되새기며 경축하는 大「미사」를 지칭하고 있다는 점을 꼭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크리스마스란 그리스도 미사의 영어 발음임)

그런데도 우린 자칫 이 성탄을 잘못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탄은 결코 꼭 2,000년전의 베를레헴 예수탄생 기념행사만은 아닌 것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늘 성탄을 맞고 매일의 생활에 크리스마스의 벽찬 감격과 기쁨, 축복이 이어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미사 참례」 없는 크리스마스란 있을 수 없고 사랑과 희생 행위없는 성탄경축이란 명달아 흥얼거리는 눈꽃속의 “징글벨”-한 겨울밤의 축제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탄은 정작 주님께서 큰 사랑 내리신 날, 우릴 위해 하느님이 우리 같이 비천한 인간신분 취하시고, 그 속에 우리를 어루고 달래시며 구원하시려 죽음의 삶을 택해 오신 날-곧 하느님 사랑이 사람되어 탄생한 때 사랑의 교훈을 낳은 사랑의 탄일이자 축일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날만은 적어도 사랑없이, 조그만 선행 하나 베풀지 않는 결코 기릴수가 없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의 해산을 도우러 찾어간 마리아나, 들녘 마굿간에 울고 있는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감싸주려 달려간 목동들처럼 우리도 그 크신 사랑앞에 무엇인가 자신을 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도 주를 뵈옵고 축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갖은대로 능력대로 사랑을 베풀십시오. 특히나 불쌍하고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에게. 울며 떨며 조라하게 태어난 갓난 아기 예수를 생각하면서 - 찾아나십시오. 어느 길가 모퉁이 한 구석에 응크리고 있을지도 모를 그리스도, 오늘에 새로 오신 작은 예수님 을! (교구청 사무국장)



양심 재판소

「이 세상에는 <양심 재판소>가 있어 그동안 몹시 괴로왔다. 그동안 써버린 금반지 2개 등 20여만원어치의 물건을 3년내에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꼭 돌려 드릴 것을 약속한다.」 이러한 편지와 함께 1년전에 잃어버렸던 고급시계와 귀금속들이 주인을 되찾아 왔어서 시중의 화제가 되고 있다.

너나 할것없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잡고, 돈을 벌고, 입학하려 눈이 번쩍거리는데 판에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스승이 아닐 수 없다.

내일 모레가 성탄절인데, 종교인인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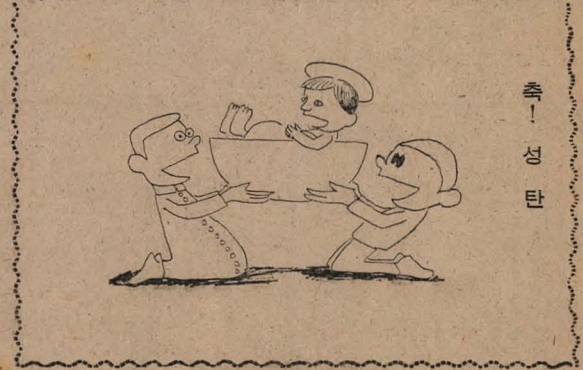
민주발전을 위한 새나라 건설에 힘을 모으자는 정치인들은 어떠한가?

값싼 노동을 제공해 주는 어린 조간이들 덕분에 몇억 불 수출탑을 탔담시고 으시대는 경제인들은 어떠한가?

우리는 이 사건에서 두가지를 배울 수 있다. 하나는 괴로워할 줄 아는 양심이다. 어마어마한 잘못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움을 못느끼는 심장에 털난 위인들이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가? 남들이 모두 손가락질하는 도둑까지도 양심재판소의 심판에 괴로움을 느끼는데, 입으로는 항상 거룩하고 깨끗한 말씀만을 말해 생활을 하는 종교인과 교수, 교사들은 어떠한가?

또 하나는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갚겠다는 것이다. 요새는 비정상이 보통이 되어버려 정당한 방법을 말하면 고리타분한 시골뜨기의 잠꼬대로 치부하기가 쉽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요사이 우리의 생활은 너무나 부황스럽다. 왜 그런가? 모두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살기 때문 아닌가?

숲 정 이 산책



□ 성탄 독상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주소서

김 준 호 신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만성이 잠든 때 메시아 예수는 가난하고 비천하게 이스라엘 베들레헴 어느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왕중의 왕, 그러나 축하나 찬기도 없이 흠고 외로운 말유유에 나셨습니다. 그 가난하고 비천하게 나신 예수가 2천년이 된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숭배를 받고 또 그의 말씀대로 우리 인간사회의 인의(人義)가 되고 도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천년전 오늘은 이세상에 새로운 윤리와 도덕이 시작된 날이라고도 하겠습니까. 그것은 이웃을 내몸같이 사랑하고, 일곱번의 쉰 십배 질백배라도 형제의 죄를 용서하라는 인간의 기본 윤리를 확립하는 분이 탄생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의인을 부르러 온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했습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섬기러 왔노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첫째가 말자가 되기도 하고, 말자가 첫째가 된다고도 했습니다. 이는 모두 우리 인간세계에 윤리적 근간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탄생은 진리의 탄생이며 이 세상을 새롭게 탄생시키는 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는 말씀은 구원에 출발입니다. 또한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온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말씀은 우리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질서 확립이라 하겠습니까. 그리고 첫째가 말자가 되고 말자가 첫째가 된다는 말씀은 이세상 역사에 변화무쌍함, 우리 인생의 변증법을 실파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통해서 이날을 세계의 명절로 그리고 기쁨의 날로, 세계 사람들이 다 함께 즐기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이 날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날이 아니고, 있는자들 가진자들의 즐거운 날인것 처럼, 있는 자들은 흥청대고, 없는 자들은 더욱 한기를 느끼고 초라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날처럼 되었습니다. 메시아 예수는 가난한 마구간에서 탄생하셨는데 말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왜,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실로 거창하신 분이, 하잘것 없는 우리의 가난한 마음-소박한 일상 그대로 세상에 내려 오셨을까요?

2천년전 이 세상 사람들이 바로 오늘이 그러하듯, 있

는자들은 있는자들끼리 재사장은 재사장들끼리, 바리새인은 바리새인끼리, 지식인은 지식인들끼리 서로 끼리끼리들만 세상의 부를 차지하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 커다란 잘못을 깨우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특별히 없는 이의 모습대로 비천하게 탄생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난하고 버림받은 내 주위의 선의의 이웃들을 위하여 이밤에 더욱 따뜻한 기도를 해야 하는 의미를 이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는 이 좋은 인사말로 어쩔 이웃을 더욱 가슴 아프게 할 수 있음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이 세상에 진리가 새롭게 심어졌고, 새롭게 탄생되었음으로 알 때, 또 그 진리는 어느 특정된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고 하느님 앞에서 나 할것없이 한 인간이라는 동등한 입장으로 나란히 무릎꿇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예수님 탄생의 진정한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이들을 위해서도 두손을 모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주소서, 그리고 사랑을 나누며 즐겁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고 진리의 길에서 영원히 의롭게 살도록 해주십시오”

터셀리우스의 유명한 기도입니다만, 다른 어느 기도문보다도 아기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로는 너무도 어울리는 기도가 아닙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주님의 축복을 받고, 사랑을 나누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진리의 길에서 영원히 의롭게 살 수 있게 기도 드린다는 것-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우리는 평범한 소시민이고, 작은 행복이지만 소중해 할줄 알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유에 누워계신 아기 예수님께 우리들의 조그마한 소망을 아무런 부끄럼없이 말씀드릴 수 있는 소박한 신앙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이 밤-당신은 우리의 무슨 소망이든 다 들어 주실듯이 빙긋이 웃으시는 아기 예수님 앞에서 두손 모두를 그 마음속에 누구를 위한 무슨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소비자 보호협회의 금상 획득!

한국 은수 보일러

난방·연탄보일러·기름보일러·공해방지

한국 流 은수 온돌 호남총판

이리 ㉠ 8629 ㉡4415 군산 ㉢ 1322

도 지정 40호 설비사

전주지점 모집

- 생화·각종 화분·신부부케 전문·제대장식
- 유명장사 직접지도 꽃꽂이 회원모집
- ◇ 교우 여러분께는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진 선 미 꽃 집

전주극장 골목 전화 ㉠ 0921

범 띠도(덕배)·이 마리아

□ 크리스마스 특집방송 안내

79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크리스마스 특집방송을 마련했습니다.
교우들의 많은 청취를 바랍니다.

□ 군산 서해방송(SBC)

- 12월 25일 밤 11시 5분~12시 50분까지 -주교님 멧세지 발표
- 성탄 이야기와 성탄곡 -메시아 곡 -성탄드라마「스크루지」
- 성탄 자시미사 중계(중앙성당 24일밤 자시미사 중)

주교님의 성탄 멧세지는 당일 각 본당에서 미사중에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80년대 첫날의 신년 교례회(新年交禮會)

-참가 희망자는 오늘중으로 본당 사무실에 신청해야

대망의 80년대가 아흐레 앞으로 성큼 다가갔다. 우리 모두가 큰 꿈으로 소망하는 새 날을 맞아, 교구 형협(敎區平協)에서는 세년과 같이, 신년교례회를 80년 1월 1일 오전 10시 30분에 전주 가톨릭 센터에서 갖는다.

신년교례회에서는 「새해 인사 나눔」과, 「회장단 임명장 수여」(각 본당 사도회장과 교구단위 액선단체장)와, 「공로상 수여」등이 있다.

교구형협은 당일의 혼잡을 피하고 기념품의 사전 준비를 위해 교례회 참가 희망자를 미리 접수한다. 교례회 참가 희망자들은 본당 사도회장이나 사무장에게 오늘(23일)중으로 신청하여, 각 본당이 교구형협에 제출하는 참가자 명단이 12월27일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 참가비는 1인당 2,000원으로, 참가자에게는 간단한 중식과, 교구장이신 형협 총재주교의 서명이 든 신자수첩(포켓용)이 주어진다.

각 본당에서는 12월27일까지 ① 신년교례회 참가자 명단(全州 공문 79-17호 참조)과 ② 사도회장의 이력서와, 사도회 임원명단(全州 공문79-16호 참조)을 반드시 제출하여 당일의 혼잡을 덜고, 준비에 차질이 없게 해야 할 것이다.

“수인 형제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기쁜 성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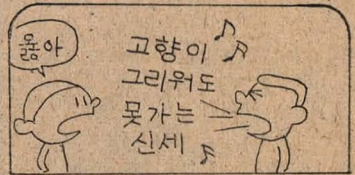
어려운 처지에 처해있는 형제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을 위해 작은 정성이라도 보이므로써 보람되게 보냅니다.

교도소에서 고생하는 자들을 위해 좋은 일 하시고 싶으신 분은 아래로 연락주시면 고맙습니다. ※ 전주 교도소 전화 ㉠ 7442 교무과 차 동주

축! 성탄

은누리 모든 분들께 가득하신 주님의 사랑을 빌니다.
전주교 전주교구청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숲정이 편집실 가톨릭 센터

요심이 (334) 김병오



로양백화점 내
(삼화약국 옆)

백양 메리야스
직매점
채순심(아네스)

□ 개업안내

테이프·레코드·카세트·DP&E

숲정 이 음악사

홍지서림 남쪽편
전대수(베드로)

결 (축) 혼

범창규 씨 삼남 범택배(떠도) 군
김복남 씨 차녀 이명자(마리아)양
일시: 79.12.26. 11시
장소: 전주 중앙 천주교회
주례: 범석규 신부님
※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우님들의 건강관리 상담

세종당한약방

김남수(벨라도)
전주시 풍남동 3가 35의9
(은행나무 사거리)
전화 ㉠ 2277

□ 교우 여러분에게는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 신속 배달

아파트 정육점

인후1동 인후아파트
전화 3-0612
최창욱(가스발)

□ 타올, 보자기, 족석 인쇄
※ 교우 여러분의 협조바랍니다

송월타올

(남문영업부)
전주시 전동 3가 9
(전북은행 남부지점)
전화 ㉠ 2849 · ㉡ 5612
업관섭(베드로)

*교우 여러분에게는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시보당 금방

(금·은·보석·각국 시계)
주이창수(파오로)
전주 남문연
전화 ㉠ 8188 (자 ㉡0369)



※ 국군 장병들에게 정성어린 위문품을 보냅니다

-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 정기총회 및 졸업생 송별회...12월 27일(목) 오후 2시, 가톨릭 대학생회관, 참가비-재학생 1천원
제1부(정기총회)-① 미사 ② 보고서 및 회칙 낭독 ③ 회장선거
제2부(졸업생 송별회)-① 선물 증정식 ② 다과 및 Recreation ③ 식별의 정
 - 신년교례회 참가 희망자는 사무장님께 미리 접수해 주세요...80년 1월 1일 오전 11시, 가톨릭 센터, 회비-2천원
 - 각 분당 사도회 임원명단 속히 제출 바랍니다(27일까지)
 - 교구 교육위원회 모임...27일 오후 2시(부교관 회의실)
교구 공소 사목위원회 모임...28일 오전 11시(신바인 본당에서)
 - 해성학교 동계 목상회...23일 오전 9시부터, 가톨릭 센터에서
- 군인들을 위한 목주성금...레지오 마리에 꼬미세움 5만원(목주 55개), 김계 백학기 5천원

(중앙)

전화 ③3651 주임 신부 서웅복
3874 보좌 신부 왕수태
보좌 신부 정대현
사도 회장 이복석

- 중앙의 밤(중·고 학생회): 23일(일) 오후 6시
 - 판공성사: 24일(월)까지 다 보세요
 - 성탄미사: 24일(월) 저녁 12시(주교님 집전)
25일(화) 오전 9시·오전 10시30분
저녁 7시30분
 - 상지회: 27일(목) 오후 6시30분
 - 국군장병에게 위문금을 보냅니다
 - 대학생회 주최 성서특강 및 영·수지도
일 시: 1980. 1. 2~31, 오후 3시~5시
접수일시: 1979. 12. 26~30, 오후 1시~3시
접수장소: 본당 사무실
- 지난주 봉헌금: 329,631원

(노충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김정원
보좌 신부 나궁열
사도 회장 박춘근

- 성탄 이브행사: 24일 오후 8시30분부터
① 가족대항 노래자랑: 오후 8시30분~9시30분까지
② 주일학교 시간: 오후 9시30분~10시까지
③ 학생회 및 기타시간: 10시~11시30분까지
④ 구유예절: 11시30분~11시55분,
⑤ 자정미사: 밤 12시부터
 - 영세식: 오늘 오후 3시, (시간엄수)
 - 공소 합동미사 및 공소대항 웃놀이
25일 오후 3시부터 신원리 공소에서, 본당 신자들에게
서도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웃놀이에 본당팀이 선발되어 출전함
 - 자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 교무금을 완납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171,670원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전종삼
사도 회장 유제상

- 성탄 미사안내
24일 자정미사, 25일 오전 10시, 저녁 7시
 - 세례식: 24일 오후 3시(유아세례 결합)
 - 진복회 정기총회: 12월 24일 오후 5시, 사제관
전원 참석 요망
 - 젊은이 모임: 25~35세, 24일 오후 9시, 보좌신부 방
 - 보좌신부님 영명축일: 12월 27일 많은 기구 바랍니다
 - 성탄행사: 8시부터 시작
 - 복권판매(1매 200원) 푸집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416,130원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김종택
보좌 신부 박성팔
사도 회장 조성호

- 세례식: 24일 오전 10시미사(유아세례 결합)
- 대학생회 창설: 30일 저녁미사 후
(대학생 전원 참석 바람), 장소-보좌신부님 사무실
- 시상: 어린이 매일미사 참여자...25일 오후 3시미사에
반회장님들...성탄 자시미사에
- 성탄 미사안내: 24일 오전 10시·저녁 7시·11시30분
성탄 자정미사
25일 오전 10시30분·오후 3시·저녁 7시
- 첫 영성체: 23일 10시30분 축하합니다
- 성탄행사: 24일 저녁미사후부터 11시까지

주일학교: 연극·무용·노래, 학생회: 연극·무용,
J.O.C: 연극(천국의 동행중)
※ 행운권 (어른 300원, 학생 200원)
J.O.C(해고 근로자를 위한 1일차집)

- 맘년회: 30일 저녁미사후, 대상...사도회 및 반회장님

□ 지난주 봉헌금: 316,071원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오혈택
사도 회장 한형수

- 애령회 총회: 10시미사 후
 - 병자성사: 23일 오후 2시부터
 - 판공성사 빠지신 분: 24일 오후 2시부터
 - 성탄절 행사
주일학교 무용 및 연극-오후 9시~11시
많은 참여와 협력 바랍니다
 - 자정미사: 11시30분
 - 마리아 군단 친목회 및 본당 주보행사
12월 26일 밤 8시
- 지난주 봉헌금: 85,710원

(숲정이)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이강노

- 12월 17일~19일까지 열린 바자회에 협조해 주신 형제자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성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 축! 세례식: 12월 23일 오전 9시 모두 축하합니다
 - 성탄 미사안내: 24일-자정미사·25일 10시미사·
25일-7시30분미사
 - 판공성사: 24일까지 빠짐없이 임해주세요
 - 지난주 신축기금 내주신분: 대구 장희완(10만원),
김경주(11만원), 안이영(3만원), 최규준(2만원), 김
숙자(3만원), 함포소(1만원), 누갈다 부녀회(바자회
이익금 700,000원)
- 지난주 봉헌금: 151,625원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병엽
보좌 신부 김기수
사도 회장 유석중

- 축! 영명: 27일 보좌신부님 영명축일
25일 공식미사 후 간단한 축하식을 갖겠습니다
 - 장우회: 정기총회 무사히 마쳤음
※ 회장 이원재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 교도소 방문: 25일 오후 1시까지 교도소 정문에집함
 - 회장단 임원개선: 회장-유석중,
부회장: 이종두·김병오씨가 당선되었습니다
※ 안동수 부회장님 그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 판공성사를 보지 않은 형제들은 24일까지 꼭 보셔야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 79년도 우리 성당 운영결산액은 24,076,215원
80년도 총예산은 39,175,400원으로 결의되었습니다
증가율은 60% 형제들의 적극적인 협력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282,965원

(파티마)

전화 ②0915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회장 채수현

- 축하합니다: 영세자 34명
 - 판공성사 못보신분 24일까지 보세요
 - 크리스마스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사도회 임원모임: 30일 오후 5시30분
(전원 참석하세요)
- 지난주 봉헌금: 112,200원 교무금: 124,000원